

여수 밤바다 또다른 명물 해상교량 만든다

웅천지구~소호동 1.15km 아치교 500억 투입 왕복 4차로 건설
내년 착공 2020년 완공...신도심 교통체증 해소·야경명소 기대

여수시가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해상 교량을 건설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준공한 웅천택지개발 사업지구 투자자의 사회공헌 기부금 등으로 웅천지구 예율마루 인근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동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시비 500억원을 들여 진입도로 650m와 교량 500m를 포함해 1.15km 길이에 왕복 4차로의 아치형 다리를 내년 초 착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애초 웅천지구 지엘아파트 2단지 옆 주차장에서 학동 '선소' 쪽으로 270억원을 들여 터널을 뚫고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재청이 거북선을 만든 장소였던 '선소' 부근의 문화유적 훼손을 우려해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해상교량 건설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해상교량 건설시 기존 사업비보다 230억원이나 많은 500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하는 탓에 건설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웅천택지개발지구 사업 투자자인 블루투피아씨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업 수익금 중 일부인 150억~170억원을 내기로 하면서 해상교량 건설의 길이 열리게 됐다.
여수시는 해상 교량이 건설되면 웅천택지 준공에 따른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웅천택지지구에서 웅천생태 터널을 거쳐 여수시청으로 나오는 길목인 망마 삼거리까지 주행 등급이 출퇴근 기준 현재 5등급인 E등급에서 다리를 놓으면 2등급인 B등급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돌산읍, 여수·문수지구, 웅천지구 등 3곳에서 시정 방향으로 나오는 길목이 웅천생태터널 한 곳뿐이지만 다리를 건설하면

진입로가 두 갈래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또 새로운 해상교량이 여수 밤바다 야경의 대명사인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에 이어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는 다리가 완공되면 조명을 설치해 소호동의 아름다운 해변의 조명과 어우러진 신도심의 밤바다를 관광객들에게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웅천택지개발지구 사업 계획에 다리 건설이 포함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투자자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부담이 줄어 다리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지역 5개 섬을 탐방하는 '여수 365아일랜드 체험행사' 참가자들이 섬 방문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365아일랜드 체험행사 열어

안도·하화도 등 5개 섬 투어
여수시는 "최근 지역 내 하화도, 연도, 안도, 낭도, 개도 등 5개 섬에서 가족 및 동호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 365아일랜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5개 팀으로 구성된 이번 섬 체험 참가자들은 섬을 찾아 인증샷 콘테스트와 홍보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섬 투어에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이 참여함으로써 아름다운 여수의 섬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 섬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명품 여행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힐링 걷기여행의 인기로 힐입어 금오도 비렁길, 상·하화도 꽃섬길, 돌산 갯길 등 섬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명품길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여수를 찾은 관광객 중 섬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명에서 올해 32만명으로 42%나 증가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순천시자원봉사센터·승주CC 사회공헌 활동 강화 협약



순천시자원봉사센터와 승주컨트리클럽이 최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주컨트리클럽은 지역사회 환원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갖고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펼치기로 했다.
서재석 승주컨트리클럽 사업전략실장은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나눔경연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일중 순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은 "지나해 이어 2016년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확대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승주컨트리 클럽과는 지역연계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관람차 매표소, 세계적 디자이너 멘디니가 꾸민다



순천만국가정원 관람차 매표소 조감도.

순천만국가정원 관람차 매표소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손길로 재탄생한다.
순천시는 28일 "기존 관람차 매표소가 노후 돼 운영상 불편이 많고 지난해 5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매표소와 대기열을 새롭게 건립한다"고 밝혔다.
멘디니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매표소는 지붕위로 솟은 구 형태의 구조물을 통해 순천과 국가정원의 역동적인 모습이 표현

될 예정이며, 빨강, 파랑, 노랑의 화려한 색감을 더해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또 순천만국가정원 동·서문 매표소 대기열도 멘디니의 디자인을 적용해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매표소 건립과 함께 국가정원 내 관람차의 노선도 연장된다.
관람차는 주로 몸이 불편한 관람객의 이동수단인 만큼 시는 기존 노선 2.4km를 2.7km로 늘려 이용객의 관람 편의를 증대

하기로 했다.
또 운행방향을 기존과 반대로 바꿔 다른 시점에서 국가정원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 관람차를 이용한 관람객은 총 38만8000명이며, 올해도 6월 현재 19만 5000명을 넘어섰다"며 "새로워진 매표소가 완공되고, 관람차 노선이 늘어나면 이동 취약계층의 국가정원 관람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순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순천경찰 제안
순천경찰이 제안한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순천시정과 시민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순천시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을 통해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

게 된다.
이명호 순천경찰서장은 "지역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순천경찰도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시-(주)청안 공익기부 이행약정

묘도 녹색산단 조성 완료 뒤 분양대금 중 12억 기부키로

여수시는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묘도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주)청안과 공익기부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이 기금을 지역관광 기반 시설 건설과 개보수,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노후 산단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묘도녹색산단 공정률에 맞춰 전액 국비로 125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돕고 있다"며 "묘도산단에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비롯한 기계·장비 제조업 단지, 창고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위한 조립가공 물류

단지 등이 들어선다.
이번 기부 이행약정 체결로 청안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 뒤 분양대금의 2%인 12억원에 달하는 금액 또는 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이 기금을 지역관광 기반 시설 건설과 개보수,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노후 산단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묘도녹색산단 공정률에 맞춰 전액 국비로 125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돕고 있다"며 "묘도산단에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비롯한 기계·장비 제조업 단지, 창고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위한 조립가공 물류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쌈강 다슬기] OPEN!!
쌈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만으로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조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초무침 *다슬기 영양 들솥밥
쌈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70~80년된 볏길,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접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